



비즈 프리즘 | 비대면 추석 특수 누린 오프라인 유통가...4분기가 승부처

한글날 연휴·코세페로 매출 공략 시동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석 통해 살아난 소비심리 겨냥 백화점, 가을 정기세일 기간 늘려 '코세페', 업체 참여유도 정부 지원

언택트(Untact·비대면) 추석 특수를 누린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4분기 대목 잡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초부터 매출 감소가 이어진 만큼 9~11월 한글날 황금연휴와 11월 1~15일 열리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상승세를 이어가 실적 회복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올해 추석 선물 세트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귀성을 포기한 '귀포족'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낸 것이 반영됐다.

추석을 기점으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한글날 황금연휴 특수로 이어갈 방침이다. 백화점의 경우 가을 정기세일 기간이 황금연휴와 겹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정



기세일 기간을 1주일 정도 늘려 고객 분산 및 소비 진작을 유도한 것에서 비롯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11일이 의무휴업일이지만 추석 당일인 1일과 휴업을 바꿔 연휴내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다. 이에 대형마트 업체는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이벤트를 속속 마련

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14일까지 진행하는 먹거리 및 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행사가 대표적이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을 유인해 6, 7월 진행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효과를 재현한다는 방침이다. 예년에는 할인율이 낮아 기대보다 효과가



한글날 황금연휴와 11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이어지는 대목을 잡기 위한 유통업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글날 황금연휴를 맞아 14일까지 진행되는 롯데마트의 생활용품 할인행사(왼쪽)와 코리아세일페스타 로고. 사진제공 | 롯데마트·코리아세일페스타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아차, '프리미엄 홈 세이프티 케어' 선보여



기아자동차가 홈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모션인 '프리미엄 홈 세이프티 케어'(사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미엄 홈 세이프티 케어' 서비스는 프리미엄 차종

인 K9, 스타링어, 모하비 3 차종 구매 고객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및 다양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ADT캡스 홈 도어가드'와 1.0%의 초저금리 할부 혜택을 결합한 프로모션이다.

10월 중 K9, 스타링어,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면 ADT캡스 홈 도어가드 서비스 혜택인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 '현관 앞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대화가능', '24시간 출동서비스', '도난 및 파손 보상', '화재 1억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ADT캡스 홈 도어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동안 최저 1.0%의 할부 금리(최저 금리는 선수를 10%이상 현대 M계열 카드로 전액 결제시 제공)가 적용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비대면 배송으로 인한 물품의 도난 우려, 부모의 부재 시 집안에 많은 시간 머무르는 자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맞춤형 토털 보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KT&G, MSCI ESG 평가 A 등급 획득

KT&G(사장 백복인)가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들을 업종별로 나눠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현황을 평가해 AAA에서 CCC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KT&G는 전 세계 11개 글로벌 담배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KT&G는 지난해 BBB에서 올해는 한 단계 상승한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글로벌 Top3 담배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제품안전 및 품질' 분야에서 책임 있는 마케팅과 우수한 품질 관리로 11개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공급망 노동기준' 분야에서도 파트너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규범 강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운영으로 '지배구조' 분야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MSCI는 평가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커머스, '가을맞이' 대규모 할인전 돌입

위메프, 10주년 기념 특가 행사 11번가, 가을·겨울 패션 기획전

가을을 맞아 e커머스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위메프(사진)는 10주년 기념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17일까지 '위메프 10주년 특

가원정대'를 열고, 5000여 개 상품을 선보인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각마다 '타임딜'을 오픈하고 총 130개 초특가 상품을 공개한다. 또 1000원, 5000원, 1만 원, 5만 원 등 지폐 한 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별 맞춤 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100원 딜' 이벤트도 마련했다. 100원으로 응모권을 구매하면 추천해



노트북과 방장고 등을 준다.

11번가는 4만여 종의 가을·겨울 인기 패션 상품을 모은 대규모 할인 행사 '뉴시

즌 뉴패션' 기획전을 18일까지 연다. 나이기, 휠라, 폴햄, 탑텐 등 브랜드와 리얼코코, 제이엘프 등 소호까지 총 800여 곳의 셀러가 참여해 가을 신상품부터 겨울 패딩까지 선보인다. 11번가는 기획전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15% 할인쿠폰'(5만 원 이상 구매 시)과 최대 7000원 할인되는 '15% 할인쿠폰'(5000원 이상 구매 시) 2종을 하루에 각각 2장씩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오버워치 리그 2020' 최강팀, 10월 한국서 가린다

8~10월 그랜드 파이널 온라인 개최

2020년 '오버워치' 최강자는 누가 될까.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슈팅 게임 '오버워치'를 종목으로 한 글로벌 e스포츠 리그 '오버워치 리그'가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오버워치 리그 2020 시즌 그랜드 파이널'은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창단 후 처음 그랜드 파이널 진출에 성공한 서울 다이너스티와 함께 상하이 드래곤즈, 샌프란시스코 쇼크, 필라델피아 퓨전이 출전한다. 대회는 온라인으로 치러지지만 안정적인 단일 서버 경기 운영을 위해 선수들은 한국으로 모였



다. 8일 개막전에선 서울 다이너스티와 샌프란시스코 쇼크가 맞붙는다. 이어 상하이 드래곤즈와 필라델피아 퓨전의 매치가 열린다. 대망의 결승전은 10일 치러진다.

이번 대회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금 150만 달러(약 18억 원)와 우승 트로피가 수여된다. 전 경기는 오버워치 리그 유튜브 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명근기자

에어화이트 '트리플 톤업 화이트닝젤' 출시

애경산업 에어화이트가 '트리플 톤업 화이트닝젤'(사진)을 내놓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아 미백제로 하루 한번 사용으로 치아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산화수소와 비타민C·레몬 추출물을 배합했으며 치아 착색 제거에 도움을 주는 에어루미네



기술도 적용했다. 치아 미백 주성분인 과산화수소는 기존 미백치약 대비 3배 이상 함유했다. 치아 사이즈에 딱 맞는 부드러운 실리콘인 전용 폴리셔로 디테일한 미백 케어가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경제현장.jpg

"플러스+미니스커트, 복고 감성 물씬"



힐라 모델 김유정이 '2020 가을·겨울 헤리티지 컬렉션'을 통해 복고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화보에서 김유정은 노랑과 네이비 색상이 돋보이는 플리스 재킷에 가죽 미니스커트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뽐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힐라

엔씨, AI 영역 확장...디지털 증권사 추진



엔씨소프트가 인공지능(AI)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엔씨는 KB증권, 디셈버엔컴퍼니자산운용과 'AI 간편투자 증권사' 출범을 위한 합작법인(JV)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엔씨의 AI 기술, KB증권의 금융투자 노하우, 디셈버엔컴퍼니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융합해 새 형태의 디지털 증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디셈버엔컴퍼니에 엔씨와 KB증권이 각 300억 원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엔씨는 자연어처리(NLP) 기술과 KB증권, 디셈버엔컴퍼니의 금융 데이터를 접목해 자산관리에 대한 조인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AI PB' 개발에 나선다. 엔씨는 이를 디셈버엔컴퍼니의 맞춤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핀트와 결합해 차별화된 AI 금융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엔씨는 2011년부터 AI 연구를 시작해 현재 AI 센터와 NLP 센터 산하에 5개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은 200명에 달한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